



(2026년 8월 27일 목요일 16면)

손병화 송파구의장, 특수교육 현장 애로사항 청취

육영학교·학부모 간담회

송파구의회(의장 손병화)는 21일 오전 의장실에서 육영학교 학부모 회장 및 학교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. 의회는 이번 자리를 거쳐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
이날 간담회에는 손병화 의장과 지정수 의원을 비롯해 육영학교 교장 및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 참석자들은 송파구 내 유일한 사립 특수학교인 육영학교의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. 이어 노후 시설 증축 추진과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·돌봄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.

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은 고등·전공과정 학생들의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. 아울러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과 졸업 후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충을 건의했다.

손병화 의장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“오늘 전해주시는 현장의 목소



손병화 송파구의장이 육영학교 학부모 회장 및 학교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

리를 바탕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”라며 “발달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”라고 밝혔다.

송파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. 나아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서 및 의원들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.

홍준성 기자